



공동체 소식



주님 공현 대축일

주 하느님, 오늘, 별의 인도로 성자를 이방인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믿음으로 주님을 알게 된 저희도 자비로이 이끌어 주시어,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직접 뵈게 하소서.



1월 기도지향

- 박성기(모이세), 김정옥(수산나) 가정
- 박철수 유미영(마리안나) 가정

가정을 위한 기도 지향

매 달 공동체 내의 두 가정을 선정하여 기도를 봉헌한지 일 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첫 침례 미사와 십자가의 길, 목주기도뿐만 아니라, 그 달의 모든 미사, 영성체, 목주기도, 십자가의 길, 봉사 등을 지향 가정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이 기도의 전통이 공동체 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원하는 가정은 미리 전례분과장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구역모임

- 1구역 : 1/12(토) 오후 7시, 김태중 예레미야, 김시연 엘리사벳 가정
- 3구역 : 1/11(금) 오후 7시 30분, 정준구 파비아노, 박혜정 카타리나 가정
- 4구역 : 1/12(토) 오후 7시, 고영방 스테파노, 김명은 안젤라 가정
- 5구역 : 1/12(토) 오후 7시, 김정환 요한, 윤유나 글라라 가정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 1/12(토) 오전 11시
- 장소 : 성 토마스 모여 성당

가톨릭 이민자 간담회

- 일시 : 1/12(토) 오후 3시~5시
- 장소 : 홀리 트리니티 성당
- ☎ 문의 : 김태중 예레미야 형제님

새해 인사

하느님의 은총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저희 공동체가 신앙 안에 깊은 일치를 이루며, 구원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공동체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가족의 영육간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평협 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새해에도 본당을 위해 봉사해 주십사 청합니다.

기타

- 천주의 모친 대축일(1/1), 떡국잔치와 옷놀이에 도움을 주신 평협과 함께 해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새해 공동체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 당 1부 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일(1/6), 구유 철수 및 지하실 정리가 있습니다.

전례 성가

| 시 작 | 예 들 | 성 체 | 마 침 |
|-----|-----|---------|-----|
| 487 | 211 | 163/164 | 100 |

주일미사 복사

| | 시종 복사 | 항 복사 |
|----|------------|------------|
| 금주 | 홍순익(마르띠노) | 정준구(파비아노) |
| | 김준영(요 셉) | 정병훈(보니파시오) |
| 차주 | 고영방(스테파노) | 차호섭(요 셉) |
| | 고평원(프란치스코) | 차서은(세라피나)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 | 해설자 | 제1독서 |
|----|------------|------------|
| | 제대봉사 | 제2독서 |
| 금주 | 박혜정(카타리나) | 차호섭(요 셉) |
| | 김수연(율리안나) | 최선운(마 리 아) |
| 차주 | 김주연(세실리아) | 이우영(가브리엘) |
| | 최은미(아 네 스) | 김수연(율리안나) |

애찬 봉사자

| | |
|----|---|
| 금주 | 김경희(스콜라스티카), 한춘희(라파엘라) 이영민(엘리사벳), 한순례(루시아) |
| 차주 | 손정화(이사벨), 윤유나(글라라) 유미영(마리안나), 문경윤(베아타) |

헌금 봉사자

| | | |
|----|------------|-----------|
| 금주 | 최은미(아 네 스) | 문석찬(요 셉) |
| 차주 | 신혜경(마 리 아) | 박희영(카타리나)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우금에
 정성을 다해드셔서 감사합니다!!!**

| | 참례인원 | 헌금 | 교우금 |
|-------------------|------|------|------|
| 12/30(주일) | 91명 | 536불 | 570불 |
| 천주의 성모 대축일 | 95명 | 384불 | 480불 |



주님 공현 대축일

“**믿음이 깊으면 기도를 하고, 기도가 깊으면 전례에 적극 참여한다**”

2013년 1월 6일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 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별의 인도로 세 명의 동방 박사가 세상의 구세주가 탄생되었음을 알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사실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 누리에 비추는 별빛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성화해설

동방 박사의 경배(Adoration of the Magi)
 (Giotto di Bondonem, 프레스코 1304-1306, 스크로네니 성당)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구약의 예언과 동방 박사들의 증언,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선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며 기다려온 유대인의 왕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을 통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이심을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지영현 시몬 신부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제 1 독서 : 이사 60,1-6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주 님 - 만 백 성 이 당 - 신 께 조 배 하 리 이 - 다.

- 하느님 당신 슬기를 왕에게 내리소서. 당신의 정의를 왕자에게 내리소서. 의로써 당신 백성 다스리게 하시고 공의로써 그 가난한 이들을 다스리게 하소서. ◎
- 정의가 꽃피는 그의 성대에 저 달이 다하도록 평화 넘치리이다. 그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강물에서 땅 끝까지 왕하시리다. ◎
- 타르시스와 성나라 왕들 예물을 바치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봉물을 바치리니 세상의 임금들이 모두 다 조배하며 만백성이 그이를 섬기리이다.◎
- 당신께 하소하는 가난한 이와 외롭고 불쌍한 이를 구하시기 때문이니 약하고 아쉬운 이를 여여배 여기시고 없는 이의 목숨을 살려 주시리이다.◎

제 2 독서 : 에페 3,2,3- .5-6 <지금은 다른 민족들도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계시되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 음 : 마태 2,1-12 <우리는 동방에서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세 마

“길을 떠난 사람들”



성탄축일에 우리는 한 어린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념하였습니다. 그 생명은 자라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공현 축일에 우리는 태어난 그 어린 생명을 영접하기 위해 길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념합니다.

오늘 복음은 박사라는 사람들이 해 뜨는 동방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확히 몇 명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 하는 사람인지, 베들레헴에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 후에 신앙인이 되었는지 등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 어느 하나도 복음서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시 무대에 나타났다가 그들의 배역을 마치고 사라지는 배우와 같습니다. 그들이 세 명이라는 말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물이 셋이라서, 기원후 500 년경에 발생한 전설입니다.

그들이 나타나자 ‘헤로데 임금에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고 복음서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헤로데 왕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자, 즉시 놀라고, 그분에게 대해 적의를 품었다는 말입니다. 헤로데는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 게도 알려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들은 길을 떠나 베들레헴에서 결국 아기를 찾아 경배하였습니다. 말씀은 이스라엘 안에 주어졌지만, 길을 묻고, 찾는 사람이 말씀을 만난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마태오복음서의 의도가 보입니다.

베들레헴의 구유를 향해 길을 떠난 박사들의 여정은 말씀을 찾아 나선 신앙인들의 여정(旅程)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의 말씀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별 하나입니다. 혼하디혼한 별들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정든 삶의 온상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길을 떠났듯이, 그들도 떠났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편안함이 그립기도 하였고, 회의(懷疑)에 빠져 그들의 마음이 어둡기만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헤로데 왕에게 길을 묻기도 하고, 그의 간교한 주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하느님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을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만나 그들이 준비한 정성을 바치고, 우리의 시야에서 그들은 사라집니다. 성서는 그들에 대해 더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찾겠다는 마음과 그것을 좇아 떠나겠다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길을 떠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온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재물이 꾸며주는 온상에서 하느님의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여 우월하게 살겠다는 마음에는 말씀의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초라한 구유에 한 아기의 연약한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형제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 주었을 때마다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는 복음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찾아 길을 가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말씀입니다. 초라하고 고통당하는 약한 이웃을 외면하면, 말씀에 인도하는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초라한 사람들이 있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우리의 현실에 무엇인가를 해야 하겠다는 보살핌의 마음이 있을 때, 별은 보이고 말씀은 들립니다. 그 보살핌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숨결입니다.



- 부산교구 서공석 신부 -

마중물

이란성 태아의 대화

최근에 한 친구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대화하는 이란성 쌍둥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오빠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말해줄 게 또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쌍둥이 오빠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엄마라구? 무슨 동판지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오빠의 기세에 눌린 동생은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무언가 꼭 조여 오는 것 같지 않아? 아주 기분이 나쁘고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해.”

“나도 그래. 그런데 그게 어때서?” “음, 내 생각엔 이 꼭 조여 오는 게 다른 곳,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엄마 얼굴을 보게 될 곳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표시인 것 같아. 오빠는 흥분되지 않아?” 바보 같은 소리에 질려버린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은 합리적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하느님을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하느님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욱 귀하다고 하십니다. 믿음은 아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경험 이전에 우리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으면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의 해’ 교육자료



11. 신경(信經)에서 “저는 믿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교회는 오랜 세월 믿음을 간직하고 이어왔습니다. “저는 믿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우리(교회)가 믿고 있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일치는 모든 이에게 규범이 되는, 그리고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서 일치될 이루어 주는 신앙의 공통언어를 요구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5항).

12. 신경(信經)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는 처음부터 자신의 신앙을, 모든 사람을 위한 간결하고 규범적인 신앙 조문들을 통하여 표현하고 전달해 왔습니다. 또한 아주 일찍부터 교회는 신앙의 핵심을 유기적인 조문 형태로 결집 요약하고자 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세례를 원하는 예비 신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종합은 인간의 기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것들을 골라 구성한 것으로서, 신앙의 유일한 가르침을 이룹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안에 많은 가지가 들어 있듯이, 이러한 신경도 몇 마디의 말 속에 구약성경과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참된 신앙심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습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6항).

이러한 신앙의 종합을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를 “크레도”(Credo)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종합적인 기도문이 보통 “저는 믿나이다.”(Credo)라는 말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신경’(Symbola fidei)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7항).